

관객과 나누는 현대미술 소통의 장

우수기획전시 지원사업 '방, 그리고 바깥: 12개의 방' 전시B 우진문화공간 갤러리서 개최

2025년 우수기획전시 지원사업 '방, 그리고 바깥: 12개의 방'의 두 번째 릴레이 전시인 '전시B'가 6~24일까지 우진문화공간 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이전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과 우진문화재단이 공동 주관한 기획전으로, 총 12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두 차례의 릴레이 전시 중 두 번째 전시다. 더불어 스페인 초현실주의와의 만남, 그리고 미술품 경매가 어우러진 여름밤의 예술 향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전시B'는 김누리, 김판목, 문민, 엄수현, 이가림, 이우리 작가가 참여해 '방'이라는 사적 공간을 매개로 각자의 내면과 바깥의 감성을 시각예술로 표현한다. 회화, 설치, 입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환상, 기억, 치유, 초현실 등 삶의 다층적인 풍경을 담아내며 관객에게 몰입감 있는 감상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방, 그리고 바깥: 12개의 방'은 작가의 창작 공간과 사회적 관계성을 연결하는 예술적 실험으로, 현대미술을 관객과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확장하고 있다. 전시B는 그 여정의 두 번째 장으로 여섯 명의 작가가 각각의 방식으로 풀어낸 '방'의 서사를 통해 예술적 사유



'방, 그리고 바깥: 12개의 방' 포스터

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먼저, 8일 오후 7시에는 전시B의 오프닝 행사가 열린다. 클래식 기타리스트 조성현의 감상

적인 연주로 시작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도슨트 홍다형이 스페인 초현실주의 작가 살바도르 달리의 삶과 예술 세계를 탐색하며 '도슨트와 떠나는 한 여름밤의 스페인 미술여행'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펼친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허무는 달리의 예술 세계는, 전시B 작가들이 만들어낸 여섯 개의 방과도 철학적으로 긴밀히 연결되며 흥미로운 사유의 여정을 유도한다.

전시A에서 호응을 얻었던 미술품 경매가 전시B 오프닝에서도 이어진다. 관객이 직접 예술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로, 이번 경매에는 전시B 참여 작가들의 대표작을 비롯한 다양한 작품이 출품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23일 전시A 오프닝 행사에서 열린 미술품 경매는 지역 미술계에서 보기 드문 시도로, 관객과 작가가 직접 만나는 새로운 예술적 접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부 작품은 예상가를 웃도는 가격에 낙찰되며, 작가의 창작 세계가 관객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 생생한 경험을 제공했다. 이에 전시B의 경매 역시 예술 소장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지역 예술의 저변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남원 광한루, 전북 야행명소 10선 선정

시, 광한루원 일대 야간 콘텐츠 강화·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

남원 광한루가 '전북 야행명소 10선'에 선정되면서 남원이 단순한 피서지를 넘어 밤을 여행하는 감성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해가 서서히 기울고, 바람결에 실린 서늘함이 하루의 열기를 식히기 시작하면 남원의 밤이 열려야 조망 아래 부드럽게 빛나는 누각, 연못 위에 비치는 달빛, 그리고 정원 사이로 스며드는 전통의 정취, 남원시는 여름밤의 매력을 품은 도시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에 발맞춰 남원시는 여유가철을 맞아 '남원 여름, 야행 맛집에서 즐기세요'라는 테마 아래 광한루원 일대의 야간 콘텐츠를 강화해 여행객 맞이에 나섰다.

대표 콘텐츠는 단연 '달빛정원 감상야행'으로, 광한루원의 야경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

아 온 남원의 상징이지만, 그 감성은 밤이 되면 더욱 깊어지고, 요천변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은은한 야간조명은 남원의 밤 풍경을 더욱 풍성하게 비추며, 보는 이의 감성을 자극한다.

또한 광한루원 곳곳에는 작지만 기억에 남는 야행형 콘텐츠가 배치되어, 단순히 걸고 머무는 공간을 넘어 머무르며 감상하는 정원으로서의 매력을 더하고 있다.

특히 광한루원과 주요 관광지에서 마련된 관광 안내소는 '감동 안내소'로 운영되며, 여행 스타일별 콘텐츠 추천과 포토존 안내 등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광한루원 '해설사의 집'에는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냉방 쉼터와 선풍기 벤치, 휴대폰 충전존 등이 마련되어, 더위에도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여행객을 맞이하고, 체류형 여행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올여름 남원은 단순한 여름휴가 여행지를 넘어, 감성으로 기억되는 여행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광한루원의 은은한 빛과, 관광안내소에서 관광객 맞이의 배려 등 남원에서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아프리카 무엇인가?
: 다양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강사: 조원빈 교수(성균관대학교)
일정: 2025년 8월 6일 (수) 14:00-15:30
장소: 전북대학교 박물관 2층 강당

전북대 알뜰살뜰 학생 시·문·사담 포럼 10월 개최

주최: IBS, 프랑스문화재단, 한국문화재단
후원: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박물관, NRP

전북대 프랑스·아프리카연구소 조원빈 교수 초청 '시민 인문 강좌'

전북대학교 프랑스·아프리카연구소(소장 조원빈 교수)는 오는 6일 오후 2시 전북대 박물관에서 '제2회 시민 인문 강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에는 조원빈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연사로 나서 '아프리카 무언인가'라는 주제로 아프리카 대륙의 정치적 특징과 민주주의, 정치 변동 등에 대해 강의를 펼칠 예정이다.

프랑스·아프리카연구소는 '시민과 함께, 아프리카를 읽다'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12월 10일까지 겨우 수요일마다 12회에 걸쳐 인문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인문학에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자유롭게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 발로댄스컴퍼니 무용공연 개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은 오는 8~9일 양일간 전주한벽문화관에서 발로댄스컴퍼니의 무용공연 '경계: 모든 경계는 넘어사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는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사업'에 선정된 우수작품으로, 팝핀과 현대무용이라는 서로 다른 장르의 융합을 통해 춤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창작공연이다.

특히 이번 작품은 단순한 시각적 즐거움을 넘어, 관객과 함께 '경계를 넘는다는 것'의 의미를 사유하는 무대다. 과거-현재-미래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춤의 여정을 통해 삶 속 경계와 도전, 만남의 용기를 전하고자 기획됐다.

공연에 앞서 발로댄스컴퍼니는 5일과 6일 오후 6시, 전주공예품전시관 오후대 전통정원에서 사전 거리공연을 진행한다. 이 퍼포먼스는 지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고픈 시민들에게 짧지만 강렬한 무용의 에너지를 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한편 공연 관람료는 전석 2,000원이며, 예매는 누리집에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찾아가는 국악 동행'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 '찾아가는 국악 동행'의 하반기 프로그램을 오는 8월 한 달간 운영한다.

국악 동행은 전북지역 복지시설 아동들과 함께 하는 국악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서적 안정과 문화 양극과 해소를 위한 국립민속국악원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며, 창극단원과 무용단원이 직접 복지시설을 찾아가 전래동요·민요, 강강술래, 소고춤 등 전통예술 수업을 진행하며, 아동들이 이를 직접 익히고 표현하며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반기에는 전주시 '반월다함께돌봄센터'와 군산시 '신광포자원'에서 8월 중 후속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각 기관에서 4회씩, 총 8회의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1부 '강패와 장구' (6)

무슨 일로 오셨지요?

- 오상근 -

언뜻 보서는 어려 보였지만 정말 이 여자가 관장이라면 얼굴 어딘가에 숨겨 둔 나이가 보였을 법 했지만 역시 어려 보여 여자가 관장이라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동식은 힘이 빠졌다. 농악전수관 관장 정도라면 나이가 최소 사십 대 이상은 되고 남자여야 한다. 농악 이미지처럼 세련되기 보다는 농촌 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털털한 막걸리 같은 인상이어야 한다.

그래야 동식과 급이 맞았다. 그래야 한판 불을 만하다. 여가 문신을 하고 으름장을 놓았을 때 슬쩍 반항 정도는 할 급이 되어야 한다. 한 라운드 정도의 스파링이라고 할까. 그런데 이게 뭔가. 입김만 불어도 훅 날아갈 여리디 여린 젊은 여자 아닌가.

"방으로 가서 이야기를 할까요?"
"여자는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갔고 동식은 여자의 힘에 이끌려 따라 나갔다. 너무 허탈해서 맥이 다 빠졌다고 할까. 옆에 관장실이란 팻말이 붙은 작은 방이 있었다.

여자도 긴장했는지 의자에 앉자마자 차를 같은 눈으로 동식을 똑바로 쳐다봤다.
"무슨 일로 오셨지요? 농악을..... 배우러 오셨나요?"

여자에게서 실려 오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 방에서 나는 향인지 모를 냄새가 동식의 코에 앉았다. 목향 같기도 하고 오랜 고택의 소류에 핀 수련에서 나는 향 같기도 했다.

어? 동식은 저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멍한 표정을 짓고 말았다.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낮이 익었다. 그리고 이곳이 농악전수관이라는 게 떠올랐다.

맞다. 여자는 동식이 법무부 밥을 먹을 때, 그곳에 와서 공연도 하고 강습 시간을 마련하여 사물놀이에 관심 있는 재소자들에게 강구를 가르쳤던 사람이었다.

"혹시.....?"
동식의 얼굴은 협박을 하려던 모양새에서 저도 모르게 호기심이 묻은 평범한 삼십대 중반의 남자 얼굴로 바뀌었다.

여자는 여전히 긴장을 풀지 않고 뭘 후시라고 말하는 건지는 의문을 눈에 달고 동식을 쳐다봤다.
"교도소에..... 공연.....?"
"아....."

여자가 가벼운 탄성을 질렀다. 여자 얼굴에서 전수관으로 오던 길에 봤던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올랐다. 반듯하고 고른 치아가 하얗게 들어갔다. 동식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챈 것이다.
"공연, 보셨어요?"
"그, 그렇지요."

동식은 고개를 끄덕였는데, 잘못된 것도 없이 괜히 얼굴이 붉어졌다.
"그럼.....?"
"예, 교도소에 있었어요."

"아, 그리고 그때 장구 강습을 한 시간 했는데....., 그때 오셨던 분 아니세요?"
여자도 동식의 얼굴을 기억한 것인가. 동식은 전수관 입구에 피어 있던 배롱나무꽃처럼 더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다.

이거 모양 빠지게 건달 꼴이 말슴이 아니다. 협박은커녕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송구스러워지는 걸까. 하기가 교도소 내역이 신문에 광고 낼 만큼 자랑스러운 건 아니니까.

"아, 맞다. 그때 장구를 꽤 치셨는데. 그렇지요?"
여자는 경계심을 탁 내려놓고 오래전 헤어졌던 친구를 만난 것처럼 상체를 동식에 더 바짝 기울이며 말했다.

"아, 예, 뭐....."
임금님 앞에 무릎 꿇고 앉은 신하처럼 황송하기 짝이 없는 얼굴을 어디에 뒀어야 할지 몰라 동식은 여자의 시선을 피하느라 자주 얼굴을 이리저리 돌렸다.

"저는 이름주라고 해요. 성함이?"
고창 바다에서는 이 강동식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나를 모르는 건가. 이런 때 인상을 한번 팍 써줘야 하는데.

전북도립미술관, 특별전 '진격하는 B급들' 11월 2일까지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본관 1-5전시실에서 특별전 '진격하는 B급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특별전 '진격하는 B급들'은 동시대 미술에서 B급으로 분류되는 시각언어와 현실 속 '2등 시민'으로 간주되는 존재들의 접점을 포착한다. 이 전시는 다양한 삶의 초상에 시각예술의 형식을 입힌 작품들을 통해 '자본주의적 삶의 조건'에 의해 소외된 존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미술관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대상을 비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의 모순에 대해 질문한다.

국내·외 작가 23명과 함께하는 이번 전시에는 전년도 베니스 비엔날레의 슬로건이자 동명의 작품 '외국인은 어디에나 있다(Foreigners everywhere)'로 화제를 모은 영국-이탈리아 출신 아티스트 그룹 '클레어 폰텐(Claire Fontaine)'이 참여한다.

이 외에도 국립현대미술관이 2007년 주최한 올해의 작가에 선정된 정연두, 2012년부터 SBS 문화재단의 후원이 더해져 개편된 올해의 작가상의 역대 선정 작가인 방정아, 이강승 및 수상 작가 정은영의 작품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또한 소보람, 엄수현 등 전북 청년 예술가들이 합류해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넓은 의미의 평등에 관한 메시지를 공유한다.

다양한 국적과 매체로 이뤄진 작품 72점이 참여하는 '진격하는 B급들'은 8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되며,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11시 30분, 오후 2시와 3시에 각각 전시 해설(도슨트)이 이뤄져 보다 풍성한 관람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지옥만세' 2주년 기념 상영회, 9일 JB문화공간 전주점서 열린다

오는 9일 전주 원도심에서 '지옥만세' 2주년 기념 상영회가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이번 상영회는 '앞으로도 지옥만세!'라는 제목으로 '지옥만세' 영화 상영과 감독과의 대화(GV) 등의 행사로 전주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무명씨네 협동조합과 (주)크립톤이 주관하는 2024 글로벌 상권 창출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커뮤니티 시네마 프로그램이다. 이는 지역의 공동체 구성원이 주체가 돼 지역사회의 공공적 이익에 목적을 둔 모든 형태의 영화문화 활동이다.

'지옥만세'는 지옥과 같은 현실이더라도 버텨내고 살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로, '지옥에서도 천국을 바랄 수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감독과의 대화(GV)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9일 오후 4시 전주 원도심의 JB문화공간 전주점에서 개최되며, 참가비는 1만 원이다. 관객은 사전 신청을 통해 신청(hh.sen@hhv.net)할 수 있다. 영화 상영 후



오후 6시에는 임오정 감독과의 대화(GV)가 마련됐다.

/장은성 기자